



진안군, 제16회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 개최

진안군은 18일 진안군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 42명을 대상으로 제16회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회장 김경길)가 주최하는 용담호 환경대학은 용담호 맑은물을 지키며, 용담호 수질자율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지역사회의 환경리더를 배출하고 있다.

입학식은 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장의 환영사 및 축사를 시작으로 '진안군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첫 강의가 진행됐다.

올해 환경대학은 18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6주간 환경분야 교수, 유관기관, 환경단체 등 환경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용담호 수질자율관리와 주민실천방향 △용담댐 수돗물 관리방안 △친환경 비누만들기 체험 등 주민의식개선과 지역사회 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강의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경길 회장은 "용담호 환경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의 환경리더를 지속적으로 양성했으며, 용담호 수질자율관리의 지속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책임 있는 수질개선 실천 노력에 있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8주간 환경대학에서 배운 바를 가정에서, 마을에서 몸소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진안군의 청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군, 제13회 동부권4H본부 한마음대회 개최

한국4H임실군본부가 지난 17일 임실군민회관에서 동부권 4H본부(임실·순창·남원·무주·진안·장수) 회원과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동부권4H본부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Head)·덕(Heart)·노(Hands)·체(Health) 4H 이념 정신을 실천하며,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농촌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동부권4H본부 회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화합을 도모해 농업경쟁력을 향상하며, 후계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필봉농악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하태승 전 한국4H본부 사무총장의 4H회의의 역사적 변천사를 주제로 한 강연과 4H서약 제창 기념식, 농업·농촌 및 4H 발전에 유공이 큰 우수회원 표창 결의문 낭독, 시군별 농?특산물 소개, 한 마음 경기 및 화합행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임실군4H연합회 신동현·심다은 회장이 대표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결의를 해 누구나 찾고 싶고, 쾌적한 아름다운 농촌 마을을 만들어 나갈 것에 대해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국4H임실군본부 임병규 회장은 "이번 한마음대회를 통해 4H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부안 위도면-전주시 호성동, 주민자치 자매결연

부안군 위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 만)와 전주시 호성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민철)가 18일 위도면 복지센터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위도면 최 만 주민자치위원장과 은진 위도면장, 호성동 강민철 주민자치위원장, 소민호 호성동 동장 등 비롯해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상호 간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등 전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도통동에 온기 가득

익명의 기부자, 도통동 저소득 자녀에 노트북 외 기부  
도통동, 통합사례관리 홀몸어르신 가구 '세탁기' 지원

남원시 도통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에 일천민원을 기탁한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 성금이 담긴 봉투를 조용히 복지팀에 전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기부자는 "오늘의 기부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워 살 수 없는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여 남원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맞춤형 복지팀은 노트북과 스마트 패드를 구입해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가구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전달했다.

또한 도통동은 지난 17일, 관내 통합사례관리 독거노



인 가구에 가정용품과 세탁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탁기를 지원받은 독거노인 가구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수급자가 가구로 생활용품과 세탁기 등의 부재로 빨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상자는 주기적인 인부 확인과 추가

적인 욕구 해결을 위한 서비스 연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소선자 도통동장은 "기부에 주신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전한다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소외되는 동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체고, 전국태권도대회 남고부 종합우승

전북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가 지난 12~14일 경기도 의정부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신한대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남고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90여 개 태권도 고등학교팀이 참여해 이뤄낸 결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18일 전북체고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남고부 편급에 출전한 신건호 선수가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밴텀급 이정훈 선수도 1위를 차지했다.

또 남고부 라이트급에 출전한 노형호 선수도 결승에서 아쉽게 패하며 2위에 그쳤지만, 종합우승에 힘을 보탰다.

여고부에서도 라이트급에 출전한 김근영 선수가 최상의 실력을 보이며 1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체고 태권도부가 전국 최정상급 기량으로 우승컵을 안은 데에는 모교 태권도부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헌신해온 김태실 지도자의 노력이 있었다.

김태실 지도자는 선수 시절 전국체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대회에서 다수 입상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 개최

남원시는 18일, 남원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부모회 남원시지회가 주관한 제44회 남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장애인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대한 표창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린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장애인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기 자랑이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펼쳐졌다.

한편 김현욱 노인장애인교과장은 "장애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여 듣고 더 따뜻한 복지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남원

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교육청, 중소기업 교육물품전시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전주실체육관에서 전주시(시장 우범기)와 공동으로 2024 전북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교육물품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40여개 업체가 참여해 교육기관의 수요가 많은 시설자재, 교육물품 등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방문해 전시장을 둘러보며 도내 참가업체들을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진안군은 18일 문예체육회관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가족, 진안군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농아인협회 진안군지회(지회장 이영원)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민규 진안군의의 의장, 전운태 도의원 등 관내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한 공로로 진안군 수로부터 꿈드래장애인협회 진안군지부 전 지부장인 유태욱 씨 등 4명이 유공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농아인협회 진안군지회 양영희, 꿈드래장애인협회 진안군지부 백철순, 지적장애인협회 진안군지회 김종숙, 시각장애인협회진안군지회 성영수씨가 의장상을 수상하는 등 표창 수여식과 기념사 축사 등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공연과 장기지팡,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볼거리로 흥겨운 시간이 진행됐다.

전춘성 군수는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 의지



를 북돋아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동행하는 진안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대강면, 전동기 안전점검 서비스 본격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중표)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전(원)동기 안전점검 서비스를 18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강면 특화사업으로, 대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중표,권기환)와 대강면행정협의회(위원장 권기환)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10월까지 24개 마을을 순회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 마을은 다수의 고령층이 전동차, 휠체어 등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정읍시지부, 영농지원발대식·농촌일손 돕기

농협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 농신보정읍권역보증센터(센터장 이성진), 정읍원예농협(조합장 이대진), 법무부정읍보호관찰소장 신혜진,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철수)는 1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일손부족해소를 위해 범 농협 농촌일손 돕기 및 영농지원 발대식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농협전북본부농협정읍시지부농신보정읍권역보증센터, 정읍원에농협, 법무부정읍보호관찰소,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등 25명이 참여했다.

영농지원발대식 행사는 농협이 영농철 농촌일손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범 농협 캠페인이며, 발대식후 영원면 신영리 사과 재배 농가에서 사과 꽃따기 등 일손 돕기도 함께 진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무주군 영농지원 발대식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식)는 지난 17일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사과와 고추 재배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팀 구성과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영농지원 발대식 및 영농페기물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무주군지부와 전북지역보증센터, 무주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사과 꽃 추기와 고추밭 정비, 영농페기물 수거 활동을 했다.

김범식 지부장은 "영농지원 발대식을 통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농협은 지속적인 일손돕기와 영농 페기물 수거 캠페인을 통해 무주군의 인력문제 해소와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무주군지부는 매년 농촌일손돕기와 영농페기물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담양군문화재단과 관광 협약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은 18일 담양군문화재단(대표이사 진옥섭)과 지역 간 문화·관광 연계협력 강화를 기대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문화 관광정책과 사업정보공유, 연계 가능한 관광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공동 발전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순창발효관광재단 선운숙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역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최근 광주관광공사, 전북문화관광재단, 등과 광역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